인문논총 제78권 제1호 (2020.2.28), pp. 445~461
[DOI] https://doi.org/10.17326/jhsnu.78.1.202102.445

구술로 보는 현대 중국의 여성과 노동의 역사

[서평] 뤼투(2020), 『우리들은 정당하다 — 중국 여성노동자 삶, 노동, 투쟁의 기록』, 나름북스, 486쪽.

박 철 현*

이 책은 뤼투(呂途)의 책 『中國新工人: 女工傳記』를 번역한 것이다.[1] 1968년 중국 창춘(長春)에서 태어난 뤼투는 중국농업대학을 졸업한 후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대학교수와 국제개발 원조사업 조사연구 전문가로서 활동하였다. 2010년부터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서 일하고 있다.[2] 그는 중국의 '신노동자'(新工人) 관련 3권의 책을 썼는데, 모두 한글로 번역되었다.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나름북스, 2017), 『중국 신노동자의 미래』(나름북스, 2018)가 먼저 번역되었고, 이 책이 마지막에 번역되었다.[3]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1) 국문 번역서의 제목, 원서 제목, 영문 제목(필자 번역)은 다음과 같다: 지은이 뤼투, 옮긴이 고재원・고윤실(2020), 『우리들은 정당하다 — 중국 여성노동자 삶, 노동, 투쟁의 기록』, 나름북스; 呂途(2017), 『中國新工人: 女工傳記』, 三聯書店; LÜTU (2017), *China's New Workers: Female Workers' Stories*, Joint Publishing Company.

2) '베이징 노동자의 집'(北京工友之家)는 노동자의 교육, 창업,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기존의 관련 조직들을 확대하여 2002년 성립되었다.

1. 책의 구성

이 책은 서문,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본문, 후기, 뤼투 이야기, 옮긴이의 말로 구성되어있다. 서문에서 다이진화 베이징대학교 교수가 저자를 대신하여 이 책이 가진 의미를 짚어주고, 한국어판 서문에서 뤼투는 한국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켜준 전태일 평전과 한국 방문 경험을 얘기한다. 머리말에서는 이 책을 쓴 이유, 인터뷰 대상 및 과정, 집필 과정을 밝히고 있다.

본문은 모두 34명의 여성 노동자의 구술사가 실려 있는데, 뤼투가 해당 노동자를 알게 된 경위, 노동자의 주요 삶의 이력, 최근 상황과 미래에 대한 노동자의 육성이 실려 있다. 후기에는 뤼투가 책의 초고를 완성한 이후 요청한 대학생 직장동료 학자들의 피드백을 소개하고 있다.

'뤼투 이야기'는 중국어 원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한국어판을 내면서 편집자의 제안으로 들어간 부분이다. 여기서 뤼투는 지금까지 '네 번의 내 인생' 중 앞의 세 번을 '어린 시절', '대학교수와 조사연구 전문가', '외교관 부인과 가정주부'로 제목을 달고, '네 번째 인생'은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서 일하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뤼투는 '지위와 신분'로 규정된 과거의 인생과 달리, 현재의 인생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네 번째 인생'에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경위, 생활, 일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중국 신노동자의 미래』를 쓰기 위해서 쑤저우 대만자본 공장에서 일한 경험을 간단하게 밝히고 있다.

---

3) 이 두 권의 원서는 다음과 같다. 『中國新工人: 迷失與崛起』, 『中國新工人: 文化與命運』.

2. ‘뤼투 3부작’의 세 번째 작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은 뤼투 본인의 중국 신노동자에 관한 ‘3부작’ 중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먼저 전작들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은 신노동자 집단의 형성의 계기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 개념들을 조직하여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노동자 인터뷰를 인용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했다.[4] 여기서 거시적 분석개념은 ‘도농이원구조’(urban-rural dual system)이고, ‘제1부 살 수 없는 도시’와 ‘제2부 돌아갈 수 없는 농촌’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부분에서는,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농이원구조가 1978년 이후 시작된 개혁기에 들어서도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온존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가 현재의 신노동자를 만들어내 배경이라 점을 보여준다. ‘제3부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길 잃음’과 ‘제4부 신노동자 주체의식의 형성’은 그러한 도농이원구조가 만들어 낸 차별과 폭력이 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어떠한 주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이 새로운 노동자의 형성 계기에 집중한 것에 비해서, 『중국 신노동자의 미래』는 이러한 신노동자가 자본주의 속에서 어떠한 공장과 생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 속에서 맞닥뜨린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어떠한 문화적 실천이 전개되고 있

4) 뤼투가 말하는 ‘신노동자’는 ‘농민공’(農民工)을 가리킨다. 뤼투는 농민공이란 용어 자체가 농민과 노동자(工人)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자 집단의 주체성과 문화적 실천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노동자 집단은 과거 사회주의 시기에 형성되었던 노동자 집단과도 여러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노동자 집단을 신노동자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뤼투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 글에서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신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는지를 보여준다. ‘제1부 우리의 노동’과 ‘제2부 우리의 생활’이 공장과 생활 경험에 관한 부분이고, ‘제3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와 ‘제4부 신노동자 문화의 실천’이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는 주체성의 형성과 문화적 실천에 관한 부분이다. 『중국 신노동자의 미래』는 각 부에 적합한 개별 노동자의 사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두 권의 저작은 그 주제와 구성의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개혁기 중국에서 신노동자의 문제를 도농이원구조, 주체성, 공장, 생활, 문화적 실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노동자의 형성과 전개”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책, 『우리들은 정당하다 — 중국 여성노동자 삶, 노동, 투쟁의 기록』은 전작들과 같은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취하지 않고, 여성노동자의 삶의 이야기를 충실히 기록하고 그에 대한 뤼투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서, 평범한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인생 역정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전작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기존 저작들이 ‘개혁기’의 문제에 집중한 것과 달리, 1949년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록 이 책에 실린 구술 중에서 사회주의 시기를 경험한 노동자는 3명뿐이지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40살이 넘는 연령 차이를 가진 노동자들이 경험한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전작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 책에는 “노동자 계급이 지도(중국 헌법 제1장 제1조)”하는 국가라는 건국이념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과 시장이 사회와 경제를 운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되어버린 포스트 사회주의 경험, 두 가지 모두를 가진 노동자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건국 이후 70년 동안 노동자들의 경험을 다양한 세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책은 전작들이 '신노동자'라고 하는 개혁기 새로이 형성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여성'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즉, 이 책은 노동자이자 여성인 존재의 역사적 경험을 개혁기만이 아닌 건국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를 대상으로 구술의 형태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뤼투 본인의 전작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 책에는 여성노동자가 직접 경험한 젠더 불평등과 도농 불평등이 노동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드러난다. 건국 이후 국가가 "여성이 하늘의 절반"(婦女能頂半邊天)임을 천명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일정하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책에서 여성노동자의 구술을 통해서 드러난 특히 농촌의 젠더 불평등의 현실을 듣고 있자면 인간해방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웠던 사회주의 30년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개혁기 도시와 공장에서 맞닥뜨린 '젠더화된 불평등'과 그에 맞서는 분투와 저항도 잘 나타나 있다.

셋째, 책의 구성을 보면, 이 책은 2권의 전작처럼 특정한 이론적 개념적 틀이나 제목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동자 인터뷰를 필요한 장과 절에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물론 『중국 신노동자의 미래』는 대부분의 장 제목에 특정 노동자의 실명이 들어가지만, 이 노동자의 경험은 뤼투 본인이 의도하는 특정한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로 채택된다. 하지만 이 책의 본문 꼭지들은, 중국어 부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전기'(傳記), 즉 한 사람의 일생의 행적을 적은 기록이기 때문에, 장과 절이 없다. 예를 들면, 제목이 '1971년생 아잉 목걸이와 월급'식으로 해당 여성노동자의 출생연도, 이름, 간단한 키워드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뤼투는 스스로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성노동자들의 인생'에 집중한다.

이 책의 각 꼭지들은 최소 4쪽, 최대 27쪽에 이르는데, 대부분은 10쪽 내외이다. 각 꼭지에는 뤼투가 해당 여성노동자를 알게 된 경위, 노

동자의 주요 삶의 이력, 사진, 인터뷰 내용의 직접 인용이 실려 있다. 일부 꼭지에는 급여명세서, 대만자본 공장과 독일자본 공장의 비교, 일자리 변화도 '표'로 제시되어있다.[5] 그리고 상당수의 꼭지에는 여성 노동자의 편지, 위챗 메시지, 학습 일지, 노래 가사, 일기가 해당 꼭지의 중간과 맨 마지막에 실려 있다.[6].

이렇게 뤼투는 3부작의 마지막인 이 책을 통해서, 전작들에서 개혁기 신노동자에서 나타나는 계급의 문제가 유효하고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범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동시에 그는 계급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젠더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술의 형태로 '대문자(大文字) 역사'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경험한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그들의 분투와 노력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3. 시대별 여성노동자 경험의 다양성

이 책에 등장하는 34명의 여성노동자는 출생연대를 기준으로 보면, 1950년대생 3명, 1960년대생 3명, 1970년대생 11명, 1980년대생 14명, 1990년대생 3명이다. 다음에서는 34명의 여성노동자 중 출생연대별로 몇 꼭지를 선택해서 살펴보자.

1950년대생 3명은 모두 동북지역인 랴오닝, 헤이룽장 출신이다.[7] 이들은 건국 초기인 1950년대에 태어나서 1970년대 초~1980년대 초에

5) 해당 쪽수는 다음과 같다. 91, 306, 405.

6) 해당 쪽수는 다음과 같다. 176, 210, 241, 251, 259, 270, 317, 355, 383, 416, 439.

7) 한국에는 흔히 만주(滿洲)로 알려진 동북지역(東北地域)은 사회주의 시기 중화학 공업 분야 중대형 국유기업과 소속 노동자들이 밀집된 곳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3성(省), 사회경제적 성격으로는 이들 3성과 네이멍구(內蒙古) 동부지역을 가리킨다.

공장, 인민공사(人民公社), 병원에서 생애 첫 노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는 물론,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인 1980년대 초도 여전히 과거 사회주의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있던 때라 이들의 노동경험은 이후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1951년생 뤼슈위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서 1970년대 말 기존 임금체계의 변화를 겪었고, 1980년대에는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서 사유화(私有化)된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국영기업을 거쳐서 1993년 아직까지 국유기업 개혁을 거치지 않은 화학기업에서 노동하다가 퇴직한다.[8] 뤼슈위는 1970년 '입창'(入廠, 공장에 취업함)한 최초의 공장을 "일을 너무 좋아해서 다들 열심히 일했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공장 내부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기억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혁기에 취업한 공장들은 효율과 경쟁, 비정규직화의 위협에 시달린 것으로 기억한다.

1955년생 쉐제도 농촌 인민공사가 알려진 것과 달리 생산성도 낮지 않았고, 농민들은 생산대 대장의 권위에 복종하여 근면하게 노동했다고 기억하고 있다.[9] 또한, 1984년 취직한 성냥공장도 직원의 복지시설이 완비되어있었고,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는 좋았으며, 공공재산과 설비도 아끼고 소중히 다뤘다고 기억한다. 이 공장은 국유기업 개혁을 거쳐서 2000년 사유화가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 간부, 특히 최고 책임자가 배를 불렸다"고 지적한다. 2001년 옮겨간 시계공장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노조위원장 자리를 떠맡게 되면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전 직원을 퇴출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인터뷰 당시 민간기업인 위탁관리회사와 직공의 채권채무 관계 해결을 위해 노력이 진행

8) 국유기업(國有企業)은 국가가 소유한 기업을 가리키는데, 경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민간일 수도 있다. 국영기업(國營企業)은 소유와 경영 모두를 국가가 주체인 기업이다.

9) 생산대(生産隊)는 인민공사 내부의 생산조직이다.

중이었는데, 그는 “현재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가 중국에서 가장 낮”고, “공장장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말한다.

1957년생 싼제는 1977년 고등학교 졸업 후, 의사로서 노동을 시작하는데, 1983년 취업한 병원이 ‘수익’ 중시로 경영방침을 바꾸자 병원을 그만두고 군인학교 부설 유아원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퇴직한다. 퇴직 이후에도 그의 경력을 높이 산 민영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비싼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료비를 높게 책정하려는 병원장의 의도를 알아차린 후 고액 연봉을 거절하는 사회주의적 ‘윤리의식’을 보였다.

1950년대생 여성노동자 3명은 모두, 사회주의 시기를 ‘안전한 노동환경, 평등한 노동관계, 근면한 노동자, 완비된 복지시설’로 기억하고 있으며, 1980년대 개혁기에 들어서 이러한 ‘안전, 평등, 근면, 복지’는 사라지고 경쟁, 효율, 치부, 불평등이 나타났다고 기억하고 있다.

1960, 1970년대생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1980년대와 1990년대 ‘입창’한 세대로 생애 첫노동을 시작했을 때가 바로 국유기업 개혁이 막 시작되었거나 이미 본격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국가가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계급투쟁’과 ‘계획경제’와 결별을 선언하고 ‘포스트 사회주의’(post socialism)로의 이행이 본격화되어, 기존 중국 사회주의의 핵심 구성요소인 단위체제(單位體制), 복지제도, 노동관계 등이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성노동자들에게 경쟁, 효율, 치부,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1970년생 자오제는 1988년 창춘의 소규모 국영기업에 취업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미 작업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도급제(都給制, contract work system)가 실시되었지만, 그 공장에서는 아직 노동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고, 학력과 무관하게 임금은 동등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도 거의 없었으며, 간부와 노동자 관계도 비교적 평등했으며, 무상 유치원과 같은 복지시설도 여전히 갖춰져 있었던 것으

로 기억한다. 그도 1990년대 말 단위체제 해체를 경험하고 퇴직한다.[10)]

1971년생 아룽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고 결혼과 출산 후 도시의 환경미화원으로 노동을 시작했다. 환경미화원들의 소속 주택관리대행사가 변경되고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 대행사가 환경미화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계약조건을 내걸자, 2004년 환경미화원들은 자신들의 권익쟁취를 위한 운동을 개시하는데, 아룽은 여성노동자들의 대표였다. 그는 환경미화원의 권익쟁취를 위해서, 대행사,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동사무소), 시정부의 관련 부문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통한 법률소송, 연좌시위를 전개한다.[11)] 또한, 대학생과의 연대와 노동자의 "단결이 바로 힘이"고,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동자를 현지인과 외지인으로 구분해서 계약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대행사 측에 맞서서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유지함으로써 원하는 계약을 쟁취한 강렬한 기억을, "정말 감동이죠"라고 기억한다.[12)]

1972년생 리잉은 가난한 유년을 보내고 17살이 되던 1989년 첫 노동을 시작했고 결혼 후 남편을 따라 2002년 광저우(廣州)의 한 공장에 취업한다. 2012년 7월부터 사측의 미납 사회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시정부 사회보험국도 '공장과 한

---

10) 단위체제는 도시 노동자가 소속된 기업이 소속 노동자(와 그 가족)의 임금과 식량은 물론, 문화, 보험, 교육, 주택 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자는 기업 내부에 설치된 공산당 조직에 의한 국가의 정치적 조직과 통제를 수용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단위체제는 농촌의 인민공사와 함께 사회주의 시기 중국인의 이 생활과 노동의 기본적인 틀이었으며, 개혁기 들어서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서서히 해체된다.

11)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는 도시 기층정부(基層政府)를 가리키는데, 한국의 동사무소에 해당한다.

12) 중국은 해당 호구 소재지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그 지역의 호구소지자가 누리는 사회경제적 복지와 혜택을 받기 어렵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과 지역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도시 내부에서 어느 호구를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한다.

통속'이라는 점을 깨닫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극단적인 투쟁 끝에 사회보험국과 공장의 협상 참여를 끌어내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협상에 응하게 된다.[13] 협상 종료 이후 끊임없는 사측의 괴롭힘에 시달리면서도, 사회보험 쟁취투쟁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로 기억한다.

1980, 1990년대생들은 흔히 '신세대 농민공'(新生代農民工)으로 통하는 신노동자 2세대이다. 이들이 노동을 시작한 2000년대 이후는, 1990년대를 통해서 본격적인 국내 체제전환을 일정하게 완료한 중국이 2001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시작으로 '글로벌 자본주의'와의 관련성이 한층 심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입창'한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유년기에 '유수아동'(留守兒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유수아동'은 부모가 도시 취업을 목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집에서 혼자 혹은 조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을 가리킨다. 이 책에 등장하는 1980, 1990년대생들은 대부분, 그 부모가 1980년대 말부터 도시로 장단기 이주하여 돈을 벌던 '농민공 1세대'로, 부모 없이 혼자서 크거나 조부모의 돌봄 속에서 컸던 '유수아동'의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세대를 규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앞서 1950년대생은 물론 1960, 1970년대생들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중국 농촌의 뿌리 깊은 남존여비, 젠더 불평등의 기억이다. 이들 여성노동자는 대부분 유년기에 남자 형제를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거나, 아들 출산이 필수인 가부장적 문화에서 살았거나,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81년생 차이윈은 남존여비가 매우 심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여자

13) 사회보험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서, 양로, 의료, 공상(工傷, 상해), 실업, 생육(生育, 출산)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이며, 기업과 노동자가 일정 부분씩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아버지의 강요로 중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이었다.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은 일상적이었다. 16살에 집을 떠나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허베이(河北) 농촌으로 내려갔고, 2014년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복지센터'라는 농촌 민간 공익기구에 가입한다. 이후 그는 풀뿌리 사회단체 참가를 통해서 개인의 발전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과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을 채워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복지센터'에서 협동조합, 생태농업, 교육사업, 공유경제 등을 통해서 농민의 사고와 관념을 변화시켜서 협력과 연대의 힘을 깨닫게 하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결심하게 된다. 그는 열악한 조건에서 성장했지만, '베이징 노동자대학'을 통해서 '농촌 공익활동가'로 성장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14)]

1986년생 위안위안은 한 회사나 직종에서 장기간 노동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강도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이직이 잦은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잦은 이직을 통해서 그는 대만자본 공장과 독일자본 공장의 차이도 인식하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의 사장이 되겠다'고 결심한다. 또한 교제와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남녀 사이의 평등의 기초는 독립적 주체적 여성이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1986년생 자쥔은 다른 여성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수아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5살에 나이를 속이고 무허가 공장에서 노동을 시작했다. 이후 초장시간 노동, 관리자들의 폭언, 열악한 노동환경의 대만공장에 2년 동안 일한다. 다시, 노동법을 준수하는 공장으로 옮기지만 곧 노동에 대한 회의가 들었고, 광저우의 노동자 공익기구를 알

14) 베이징 노동자대학(工人大學)은 베이징 '노동자의 집'(工友之家)에서 만든 '동심창업교육센터'(同心創業培訓中心)을 가리킨다.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신노동자에게 창업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게 되어 정식직원이 된다. 2012년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광저우 여성노동자 센터'를 창립하고 여성노동자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권익보호 활동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자쥔은 동료 '여성노동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에 큰 감동을 얻는다.

1987년생 샤오멍은 아들 출산이 필수인 가부장적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16살이 되던 2003년 선전(深圳) 플라스틱 공장에서 첫 노동을 시작한다. 이곳에서 첫 노동쟁의를 경험하고, 옮겨간 장난감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경험한다. 스스로가 아들 못지않은 딸이라는 점을 부모에게 증명하기 위해, 가부장적 의식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개인사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연히 접한 공익기구를 통해서,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돕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높은 수입을 보장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기구 활동에 뛰어든다. 이후 그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장에 취업까지 하는데,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측 발언에 격분하여, 노동자협회 노동국 노동쟁의중재소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권익보호 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사측과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2011년 3월부터는 베이징 노동자대학에서 배우고 졸업 후 조교로 남아 노동자를 교육하는 삶을 선택한다. "더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여성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1993년생 왕치는 오빠의 대학진학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포기한다. 오빠의 학비를 책임지기 위해 15살에 노동자 인생을 시작한다. 이후 식당 종업원, 소니에릭슨 노동자, 전자공장 노동자를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2013년 다시 톈진(天津) 핸드폰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힘든 노동에 대한 염증으로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한다. 2014년 여름 '톈진 노동자의 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음 해 9월 '톈진 노동자의 집'에 일하기 시작한다. 2016년에는 자신의 첫 다큐멘터리를 인터넷에서 상

영한다. 제목은 “핸드폰이 나오기까지 감춰진 여성노동자의 이야기”.

4. 그들, 중국의 전태일

필자는 얼마 전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중국의 일류대학 교수들이 오랜 시간의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집필한『거주의 정치』를 읽었다.[15] 그 내용은 도시 주택소유자 권익보호 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법률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잘 이용하는 주택소유자의 합법적 절차적 권익보호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공민’(公民)이 형성되고, 새로운 공민의 저항이 새로운 사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민의 권익보호 운동이 곧 중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 책의 주장은 주택소유자의 ‘법률적’ 투쟁이 중국사회의 참된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1 m^2 평균 매매가 7만 위안(元)에 가까운 베이징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전하고 바람직한 ‘법률’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자신의 부동산 가치 보호 운동이 곧 중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것이『거주의 정치』의 주장인 것이다.[16]

뤼투의 입장은 다르다. 이 책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첫째, ‘뤼투 3부작’은 모두,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하락은 곧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어야 하고 ‘노동이 영광스럽다’(勞動最光榮)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

15) 원서는『居住的政治』(郭于華 沈原 陳鵬 主編,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4).

16)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는 나라라는 건국이념은 온데간데없고 개혁기 중국사회의 저층집단이 되어버린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는 당국에 의해 자칫 “불온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민주주의가 가능할까를 탐색하다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주택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적 투쟁이 합법 공간 속에서 일정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일부 교수들의 ‘심정’을 필자는 일정하게 이해한다.

장한다. 우리는 뤼투의 책을 통해서, 합법/불법의 경계를 넘어서, 필요하다면 법률도 이용하고 변호사에 자문도 구하고 관련 정부 부문에 진정서도 제출하면서도,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극단적인 투쟁도 감수하는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입장을 읽어낼 수 있다. 전작들이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이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자신의 인생 역정을 얘기하는 여성노동자의 구술을 통해서 바로 그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자 한다.

둘째, 전작들과의 공통점은 이 책이 기존 '농민공' 담론이, 이들 노동자의 주변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현실 속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신노동자 주체성'의 형성과 전개라는 측면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한 것에 있다. 전작들과의 차별성은, 이 '주체성의 형성과 전개'라는 측면을 노동자 개인에게 밀착한 '구술'을 통해서 부각시켰다는 것에 있다. 이 구술은 단지 노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출생과 유년 시기, 성장과 '입창', 현실과 저항 분투, 성과 사랑, 자주적 독립적 인간으로서의 의지 등, 인생 역정을 통해서 여성노동자를 묘사하여 독자를 숙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거대한 역사'와 '사소한 개인사'가 조우하는 지점을 여성노동자의 시대별 경험의 차이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점이다. 구술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과 공식적인 서사의 충돌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중국 역사서술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건국 이후 사회주의와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을 배경으로, 출생연대가 다른 노동자들의 젠더화된 경험을 삶, 노동, 투쟁의 문제에 집중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역사서술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950년대생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주의 공장, 인민공사, 병원의 평등과 복지와 개혁기의 대조적 현실을 부각시켜서 기억한다. 1960, 1970년대생들은 사회주의 시기 태어났지만, 노동자로서의 경험은 개혁기에

들어서 시작한 세대들로, 사회주의 유산이 일정하게 남아있던 1980년대와 그것이 급격히 해체된 1990년대에 첫 노동을 시작한 여성노동자들이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은 개혁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 세대들과 달리 과거 사회주의에 대한 일차적 경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의 젠더화된 노동의 경험을 구술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의의는 충분하다.

물론, 아쉬움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구술로 보는 현대 중국의 여성과 노동의 역사'로 보기에는 34명 중 사회주의 시기 여성노동자가 3명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뤼투 본인도 밝히고 있듯이, 주요 서술대상은 개혁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여성노동자들이고, 사회주의 시기 국유기업 노동자는 추후 추가되었고 전체의 10%도 안 된다. 물론 이 책이 균형 있고 전면적인 '현대 중국의 여성과 노동의 역사'를 명시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기왕 사회주의 시기 여성노동자를 인터뷰했으면 더욱 많은 숫자를 인터뷰해서, 세대별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상호 '충돌'시킴으로써,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공식 역사의 '전체시기' 속에서 위치시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역사와 '사소한' 개인사가 충돌하는 지점을 여성노동자로 설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이지만, 전체 34개의 이야기 중 사회주의 시기는 불과 3개로 빈약하다.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기는 국가-노동자 관계, 노동자의 지위, 복지제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기에 시작하여 개혁기까지 관통해온 여성노동자의 삶이 3편뿐이라는 점이 아쉬운 것이다.

또한, 물론 구술사가 구술자의 모든 구술에 엄정한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술을 날 것 그대로 제시하고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고 저자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의

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 구술내용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까지 제시해줌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첫째 꼭지 「1951년생 뤼슈위」에서 사회주의 시기 국유기업 내부의 노동과정, 노동환경, 노동규율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구술자가 '긍정적', '낭만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는 각주 등의 형식을 통해서 저자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해줌으로써, 독자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사회주의 시기 공장이 구술자가 기억하는 것처럼, 평등하고 복지가 완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가 밝히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 시기는 물론 개혁기에 들어서도 국유기업만이 아니라 '집체기업'(集體企業)도 노동자가 주요 취업 장소였고, 특히 1970년대 말 공업부문에 취업한 도시 여성노동자들의 42%는 국유기업이 아닌 집체기업에 소속되었다는 관련 연구도 있다.[17] 국가가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원하는 국유기업과 비교해서, 집체기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국유기업과 비교하면, 임금, 복지, 노동환경, 국가의 지원 등 모든 측면에서 뒤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집체기업 자체도 이미 '젠더화'된 고용의 한 형태이므로, 집체기업 여성노동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여성노동자와 구별되는 경험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실성과 사명감으로 헌신적으로 노동자와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해온 뤼투의 작업과 이 책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교수, 외교관 부인, 국제기구 전문가 등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노동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장기간 탐색, 고민, 실천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뤼

17) Hanchao Lu (2019), "More Than Half the Sky: Women and Urban Neighbourhood Workshops in China, 1985-1978", The China Quarterly 243.

투와 그의 작업은, 온갖 젠더 불평등과 노동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들은 정당하다”라고 외치면서 독립적 자주적인 여성노동자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 책의 주인공들과 닮아 있다. 그들은 중국의 전태일이다.